

제주 산학융합지구 조성 왜 필요한가?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승 철

I. 들어가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부터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R&D-인력 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는 1개 지구당 5년간 200~3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되고, 근로자평생 학습, 현장맞춤 인력양성,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10개 산학융합지구가 지정되었다. 2011년 첫째에 경기도 시화·반월지구, 전북군산새만금지구, 경북구미왜관지구 3곳이 지정된 것을 비롯하여, 2012년에는 목포대불지구, 충북오송지구, 울산지구 3곳, 2013년에 충남당진지구, 2014년에 경남 창원지구, 2015년에는 부산지구, 여수지구가 지정되었다.

〈표 1〉 우리나라 산학융합지구 지정 및 현황

구분	참여대학	지자체	
2011년	반월시화	산업기술대	경기도, 시흥시
	군산새만금	군산대, 전북대, 호원대, 군장대	전북도, 군산시
	구미·왜관	금오공대, 경운대, 영진전문대, 구미대	경북도, 구미시
2012년	대불	목포대	전남도, 목포시, 영암군
	오송	충북대, 청주대, 충북도립대	충북도, 청주시
	울산	울산대, 울산과기대, 울산과학대	울산광역시
2013년	당진	호서대	충남도, 당진시
2014년	창원	경상대, 경남대, 마산대	경남도, 창원시
2015년	부산	한국해양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수	전남대	전남도, 여주시

제주의 경우 2012년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왔고, 2013년 12월에는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공모에 신청했으나 탈락하여 그동안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창조 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 지구지정이 되면 기존 산학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힘을 모아 지역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제주의 역량을 결집시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 및 기업활성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QWL(Quality of Working Life)을 향상시켜 제주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글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필요성을 산업적, 수요자 측면에서 조망함으로써 도민과 정부간에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창조경제와 산학융합지구

1. 창조경제시대의 도래

세계경제는 실물중심 산업경제(Industrial Economy)에서 정보·지식 중심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로 전환하였으며, 최근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창조경제¹⁾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Joseph Stiglitz²⁾는 미국의 1930년대 경제 대

1)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1998)는 창조산업을 창조성, 기술과 재능, 부의 창출, 지적재산권을 통해 일 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하였고,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2001년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조경제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제적 자본과 상품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UNCTAD(2010)는 창조산업을 '첫째, 창의성과 지적 자본을 사용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창조, 생산, 유통하는 업종, 둘째, 예술 등 모든 지적재산권이 있는 분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활동, 셋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가 포함된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지적 또는 예술적 서비스 분야'라고 하였다.

2) 정보경제학을 발전시킨 미국 Colombia 대학 교수(1943~)로 비대칭 정보 시장이론 등 현대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공로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공황(Great Depression)은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현재 경제 대침체(Great Stagnation)는 생산·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환 시기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엘빈 토플러의 물결이론에서 제시한 수렵사회 → 농업사회 → 산업사회 → 정보화 사회로 전환의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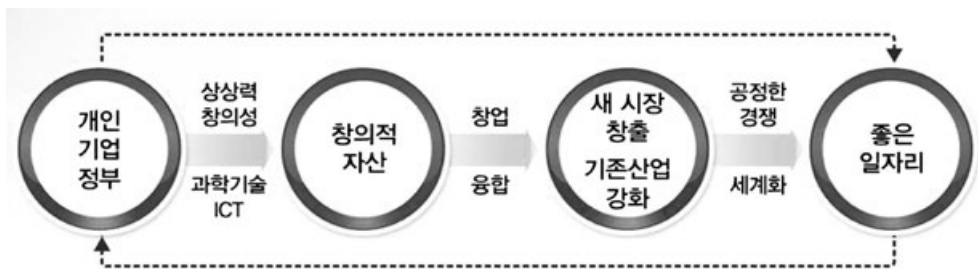
〈그림 1〉 기술혁명과 사회 진화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이었던 2012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엔 창조경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한데서 비롯되었다(김광두, 김영욱, 2013).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창조경제 정책을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창조경제 생태계 개념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창조경제 실현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6기 들어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용암해수 융복합산업 육성 추진,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3가지라고 하겠다. 이 중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13,220㎡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 등 252억원을 투입하여 산학융합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격이다.

2. 산학융합지구의 개요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하나의 건물 또는 일정면적의 단지 내에 공동으로 입지하고, ㉡일시적인 산학연계가 아닌 지속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단일 기술 협력 중심에서 탈피하여 학제간 연구를 활용한 기술융합적 협력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홍진기, 2013). 대학과 기업이 화학적 결합 수준을 의미하는 산학융합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같은 건물 내지 단지에 입지함으로써 공간적 결합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동반적인 화학적 결합을 추구하며, 학제간 연구를 통한 기술융합적 협력의 기술적 결합을 도모하는 개념이다(이남호, 2013). 산학융합지구 추진근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나타나 있다.

〈그림 3〉 산학융합지구 기본모형



산학융합지구 지정 사업내용은 크게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과 산학융합촉진으로 구분된다. 특히 산학융합촉진 사업내용은 첫째, 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으로 재직자특별전형, 계약학과 동업자 대학, 비학위 직무교육과정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선취업 후진학, 취업인턴십, 현장실습 등이 있다. 둘째,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제공으로 학부 3~4학년생에게 프로젝트 Lab, 인턴십을, 학부졸업생과 대학원생에게 학점 인정 및 졸업 산학융합 R&D 참여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으로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 중견기업 연구소 설치 및 산학융합 R&D 지원 및 대중소 기업협력 및 대학연계형 교육, 기술지원 등이 있다. 넷째, 산학융합형 산학협력 추진체계 구축으로 대학, 산단공, 지자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법인을 구성하여 산학융합사업 총괄 기획 및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산학융합형으로 개편할 수 있다.

즉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 조성되고,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장비의 지원 및 이를 통하여 산학공동 연구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한 곳에서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입주기업과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는 교육을 통해 대학 졸업생의 지역 취업을 확대하고, 이직율을 줄일 수 있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산학협력의 새로운 성공모델로서 산업집적지 구조고도화는 물론 기존 중소기업 지원기능과 신성장 동력 창출기능을 발휘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표 2〉 국내 유사 정책사업

	산학협력실	기업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개 념	대학의 실험 실습실을 중소기업의 R&D 전용공간으로 활용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입주공간 제공, 종합적인 보육 지원	창업보육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지역 거점 인프라로서 지역 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산학연기술개발 지원
내 용	대학연구실 연구비 지원 기업의 상품개발 연구활동 수행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산학 공동 연구과제 지원	정부 대학이 공동출연하여 대학내 산학협력단이 운영혁신 주체의 창업기업 지원	정부, 대학, 지자체가 공동출연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
특 징	연구실 연구역량에 의존, 연구활동 단절적	연구역량 지속적 강화를 위한 지원 미흡 기업인프라 연계 및 지원효과 반감	연구개발보다 창업 보육에 중점	신기술 창출 지원 여건 조성 중소기업 연구소에 직접적인 지원보다 연구개발비 지원에 중점

자료: 홍진기(2013), 정부의 산학융합지구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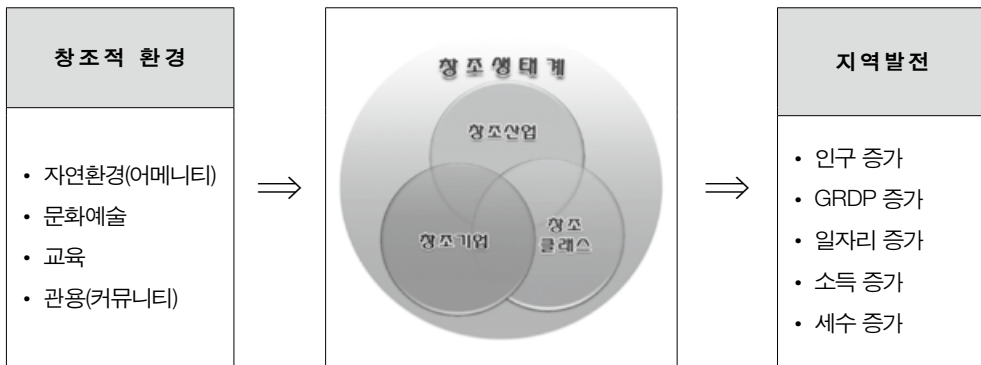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으로는 기업중심의 산학협력 추진, 기업연구소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 기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에 있다(홍진기, 2013). 산업현장에서 기업과 밀착하여 수요자 맞춤형 R&D 수행을 추진하고, 기업연구소의 집적을 통해 연구개발분야에서의 ‘칸막이 현상’ 해소 및 산업간 이업종간 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하고, 창업보육보다는 기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III. 제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필요성

1. 제주지역 창조산업 육성 기반으로 조성 필요성

제주의 창조경제의 환경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지만, 제주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될 경우에 보다 창조적 환경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림 4〉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지역발전



제주지역 창조산업 여건을 정성적으로 분석해보면, 창의적 인문·자연환경 구비, 도시적 생활기반 확보, 접근성 양호 등 제주의 창조적 환경은 잘 갖춰져 있으나 창조경제 생태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첫째 제주도는 청정성(날씨, 기온, 이미지), 자연환경(유네스코 자연유산, 올레길), 문화 자원(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바다, 산, 오름), 행복도(행복지수, 출산율)가 높으므로, 창의적 인문·자연환경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조산업의 창조계급은 창의적 환경에서 창의성이 가장 잘 발현되며, 창의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관광,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둘째, 대학, 중·고등학교, 제주국제영어마을 등 우수한 교육 환경과 제주시 및 혁신도시(서귀포시) 등 창조적 종사자들을 위한 도시적 생활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항공, 해상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 확보로 접근성이 양호하다. 물리적 거리보다는 시간적 거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창조경제 생태계는 미흡하다. 제주지역 연구개발조직은 공공연구기관 11개, 대학 5개, 기업체 93개 등 모두 109개이다(〈표 3〉 참조).

〈표 3〉 제주지역 연구개발 수행 조직수 및 연구원(2013년 기준)

주체별	전국		제주	
	연구조직	연구원	연구조직(%)	연구원(%)
계(전국대비 분포비율)	27,589	410,333	109(0.39%)	1,532(0.37%)
공공연구기관	478	31,140	11	165
대학	414	97,319	5	980
기업체	26,697	281,874	93	387

자료: 미래창조과학부·KISTEP, 201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결과

제주지역 연구개발조직에서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 165명, 대학 980명, 기업체 387명 등 모두 1,532명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연구기관의 운영은 잘 되고 있는 편이나 기업연구소를 둘 정도의 우량 기업 수가 부족하여 기업 차원에서의 연구는 더딘 편이다. 2003년에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D사업 투자배분 및 정책 수립 관련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정부 R&D 유입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전체 R&D의 0.5% 내외가 유입되었다(〈표 5〉 참조).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도 국가 전체 R&D 증가율 9%에 못 미치는 7.1%로 과학기술 R&D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제주지역의 규모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중앙정부 R&D 유입현황

(단위:백만원)

지역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국가 R & D	10,993,594	12,414,472	13,682,702	14,852,770	15,906,397	16,913,921	9.0%
제주도 투자	59,239	57,993	65,949	71,763	82,711	83,321	7.1%
전국대비 비중	0.54	0.47	0.48	0.48	0.52	0.49	

2. 산업적 측면에서의 조성 필요성

제주지역은 1, 3차 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UR-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해외여행 자유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1, 3차 산업은 쇠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지역은 1차, 3차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제주의 산업별 생산구조의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분의 비중은 소폭 개선되고는 있으나 큰 변동이 없다. 2000년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조업 생산 비중은 평균 2.86%(경상가격 기준)이며, 동기간 중 제조업 부분 성장률은 미미하다. 광업과 합치더라도 3~4%에 그치고 있다(〈표 5〉참조).

〈표 5〉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전국과 비교 현황

구 분	2007		2010		2012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지역내 총생산(시장가격)	100	100	100	100	100	100
농 립 어 업	2.4	13.9	2.2	15.4	2.1	13.8
광 업	0.2	0.2	0.2	0.2	0.2	0.2
제 조 업	26.1	2.7	27.9	3.0	28.6	3.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	1.7	1.5	1.8	1.5	1.9
건설업	5.3	7.0	4.6	6.3	4.1	7.1
도매 및 소매업	8.1	7.8	8.1	8.5	8.5	8.5
운수업	3.4	4.8	3.5	4.3	3.5	4.8
숙박 및 음식점업	2.5	5.7	2.4	5.6	2.3	6.0

구 분	2007		2010		2012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3.6	2.0	3.6	2.1	3.7	2.2
금융 및 보험업	5.6	5.5	5.7	5.2	5.7	5.0
부동산업 및 임대업	7.4	8.4	7.2	8.2	6.9	7.4
사업서비스업	6.1	3.0	6.2	3.1	6.2	3.8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6.3	11.8	6.2	12.2	6.2	12.0
교육서비스업	5.3	7.7	5.1	7.2	4.8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2	4.7	3.5	5.0	3.6	4.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9	5.7	2.8	5.3	2.7	5.2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이 동반되지 않는 3차산업 혹은 1차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관성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두 가지 제도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1차, 2차, 3차산업이 골고루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산업구조 기반을 차근차근 갖춰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수요자 측면에서의 조성 필요성

1) 산업단지 현황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주도의 산업단지 수는 총 5개(전국의 0.5%), 지정면적은 1.6km²(전국의 0.1%)이다. 국가 1, 일반 1, 농공단지 3개 등이고, 또한 2개의 산업단지가 준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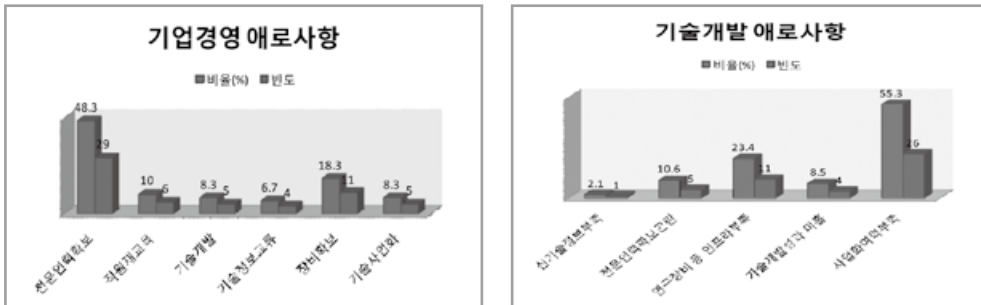
〈표 6〉 제주도 산업단지 고용 및 매출 현황

단 지 명	입주업체수	고용인원	
국가 산업 단지(1,099,000m ²)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90	1,100
일반 산업 단지(197,000m ²)	용암해수산업단지	12	30
농 공 단 지(312,000m ²)	구좌농공단지	15	177
	금능농공단지	20	197
	대정농공단지	22	209
합 계			1,713

2) 수요조사 결과

제주지역 산업단지 수요조사 결과³⁾는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산학협력 실적은 있다가 38.1%에 그치고, 없다가 61.9%로 나타났다. 산학협력이 어려운 이유로는 정보부족이 57.6%, 소통부족 21.2%, 대학인력 불성실 12.1%, 대학 역량 부족 3%로 나타났고, 산학협력 참여 의향은 긍정검토 42.5%, 반드시 참여 17.5%, 주변여건 고려 15%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전문인력 확보가 48.3%로 가장 많았고, 장비 확보 18.3%, 직원재교육 10%,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가 각각 8.3% 등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애로사항은 사업화 여력 부족 55.3%, 연구장비 등 인프라 부족 23.4%, 전문인력 확보 곤란 10.6%, 기술개발성과미흡 8.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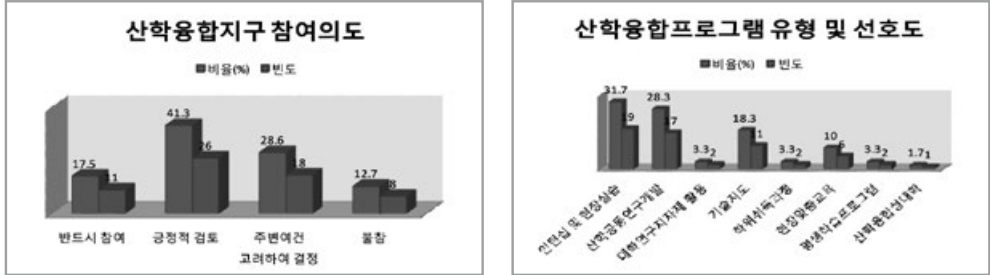
〈그림 5〉 기업경영 애로사항 및 기술개발 애로사항



산학융합지구 참여 의도는 긍정적 검토가 41.3%,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결정이 28.6%, 반드시 참여가 17.5%, 불참여 12.7% 수준이다. 산학융합프로그램 유형 및 선호도에 대한 답변은 인턴십 및 현장실습이 31.7%, 산학공동연구개발 28.3%, 기술지도 18.3%, 현장맞춤교육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2013년 제주산학융합지구 유치 TF 실무단이 도내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6〉 산학융합지구 인지도 및 산학융합지구 참여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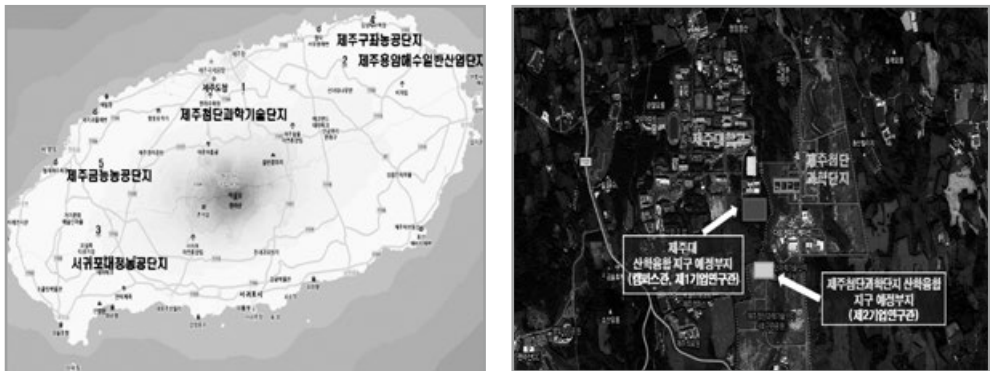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수요조사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업체들은 산학융합지구 조성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인력 확보 등 산학융합 조성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V. 제주산학융합지구 추진 준비 및 기대효과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위치는 제주대학교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부지로 제주시청으로부터 약 7km, 제주국제공항공과 10km, 제주항으로부터 9km 거리에 위치하고 11번 국도와 16번 국도가 근접하여 통과하여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하다. 제주국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 교육기관과 (재)제주TP바이오통합센터 등이 인접하여 연구개발과 창업지원, 교육훈련 및 연구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그림 7〉 제주융합지구 개념도



제주산학융합지구 지정 기대효과로는 첫째, 제주산학융합지구 지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또는 단지 간에 정보 기술 교류 및 공동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허브기지로 자리매김하여 산업체간의 시너지 발휘가 가능하다. 둘째, 제주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유치와 첨단기술 위주의 산학공동 R&D를 통한 인력 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산학융합형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 즉 ICT, BT,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와 연계한 현장중심형 고급 엔지니어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타 지역 기술혁신형 기업의 이전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내 노동집약형 단순 제조업체를 기술집약형 업종으로 전환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넷째, 산학융합형 맞춤형 취업인력 양성프로그램의 조기 정착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및 산·학·관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지역대학의 역할 증대는 물론, 산학융합지구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V. 마무리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 2월 제주산학융합지구 유치계획 마련, 2013년 4월 산학연관 유치전략 TF팀 구성 및 1차회의, 2013년 7월 기선정 3개 산학융합지구 벤치마킹 및 유치전략 TF팀 2차회의, 2013년 9월 산업단지 입주업체 설문조사 실시, 2013년 11월 제주소재 대학, 특성화고 관계자 대상 유치설명회 개최, 2014년 1월 유치추진 실무위원단 구성 및 유치추진단 발족식 및 참여기관 MOU 체결, 2014년 4월 사업계획서 신청 및 (사)제주산학융합본부 창립총회 개최, 2014년 12월과 2015년 지구지정 공모 신청 탈락 등이다.

산업통상부의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되면, 제주대학교와 제주첨단과학단지 주변 산학연관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것이기 때문에 제주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장철순(2014), 창조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산업단지 공급방안
제주대학교(2013), 제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학융합 수요조사
홍진기(2013), 정부의 산학융합지구 추진방향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임형백(2014), '창조경제를 활용한 지역발전의 방향'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